

‘금투원 전주센터’ 설치 손 잡다

국민연금·금투협과 협약 내년 상반기부터 업무 시작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29일 국민연금공단 본부(전주)에서 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와 ‘기금운용 인력양성’ 전문 교육기관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김성주 의원을 비롯해 각 기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공단은 기금운용 인력양성을 위한 ‘금융투자교육원 전주 교육센터’를 기금운용본부에 위치한 ‘글로벌기금관’ 내에 설치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공단은 올해 최초로 세계 1,2위 수탁은행인 SSBT, BNY Mellon과 협업해 교육과 채용을 연계하는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인재 6명(정규직 2명, 인턴 4명)이 채용되는 성과를 이뤘다. 여기에 교육센터가 참여하고 지자체 지역대학 등과 협업을 확대할 경우 지역 인력양성에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협회 나재철 회장은 “이번 금융투자교육원 전주교육센터 설치를 기반으로 기금 전문인력에 대한 최상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29일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왼쪽에서 두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글로벌기금관에서 ‘국민연금공단-금융투자협회 업무협약 체결식’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금의 기금운용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오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민연금과 우리 금융투자협회의 협력이 더욱 확대되어 우리나라 금융 경쟁력이 한층 더 높아지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전주의 국회의원이자 보건복지위원회 여당간사로서 국민의 노후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체

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훌륭한 금융인재 육성이 이뤄져 전북 금융생태계 조성에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은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과 국내 최대 금융단체인 금융투자협회가 전주에서 금융인재 양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금융투자교육원 전주 교육센터 설

치로 기금 전문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내 국내 금융시장의 인재 육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민연금공단, 금융투자협회, 전라북도가 협력한다면 ‘자산운용 통합 지원센터 설립’ 등과 같은 전북 금융도시 조성에 의미 있는 성과 창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29일 영업본부 회의실에서 제 7대 장경민 본부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고객 중심적 순환구조 이끌 것”

신임 장경민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 취임

장경민 농협은행 전북본부장이 취임식을 갖고 신년부터 공식 업무에 돌입한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29일 영업본부 회의실에서 제 7대 장경민 본부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은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해 관내 52개 사무소장과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장경민 본부장은 “장을 베고 누운 채로 아침을 맞는다”는 ‘침과대단(枕戈待旦)’의 각오로 2022년 전북 경제 대도약을 이끌어 가겠다”며 취임 일성을 밝혔다. 이어 “지난 2년간 코로나 19로 위기를 겪은 농업, 농촌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고객관리 강화 ▲디지털금융 변화 선도 ▲우량 기업여신 확대 ▲선제적 리스크 관리 ▲협장지원 역량 강화 등 5대 경영방침을 제시했다.

특히 고객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고객 중심적 순환구조 구축, 농업 금융 활성화, 농협 금융 특색을 갖춘 디지털 전환, ESG 경영 실천 등 농협은행의 지속 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끝으로 장 본부장은 “농협은행의 존재 목적인 고객과 농업인의 무한한 사랑과 신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지역밀착형은행으로서 전북도민과 고객 중심 상생금융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경민 신임 본부장은 풍부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탁월한 업무 추진능력, 일선 영업직과의 소통에 뛰어남에 호평을 받고 있다. 전북 임실 출신으로 1992년 농협에 입사해 전북도교육청 지점장, 군산중앙로 지점장, 순창군지부장, 전북지역본부 경제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김윤상 기자

‘한국형 농업기술, 개도국과 공유’

에과도르에 무병 씨감자 생산·아시아태양유기탄소지도 제작 등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인류의 보편적 공공 가치인 ‘기아 해결’과 ‘식량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60여 년 동안 축적한 우리의 농업기술과 경험을 아시아·아프리카, 중남미의 개도국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이끈 농업기술과 농촌개발 경험이 국제사회 농업 발전에 기여하면서 K-농업기술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

농진청은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를 22개국에 설치하고, 아시아 13개국, 중남미 12개국, 아프리카 23개국이 참여하는 대륙별 농식품기술협력체(AFACs)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KOPIA와 대륙별협력체는 개발협력 국가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기술개발과 보급을 위한 공공기술 혁신 플랫폼 기능을 다하고 있다. 세계 농업 발전과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K-농업기술이 확산됨에 따라 여러 나라에서 해외농업기술지원사업 참여를 적극 요청하고 있다. KOPIA, 대륙별협력체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아프리카개발연구소(AfricaRice), 세계은행(WB)과 공동으로 세계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기구와 지속적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대륙별 협력사업을 이끌어 가면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2018년 KOPIA 캄보디아 센터는 캄보디아 연구기관이 최초 옥수수 종자

CHM01(Cambodia Hybrid Maize 01호)을 개발하고 품종을 등록하는데 협력했다. 노균병에 강한 CHM01 옥수수 종자는 기존 품종에 비해 수확량이 많고, 종자 가격이 주요 수입국인 미국, 태국에 비해 30%가량 저렴해 캄보디아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KOPIA 협력사업, 캄보디아 옥수수 종자 개발”은 2019년 유럽상공회의소 백서에 소개되어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성과의 우수성을 일컫는다.

▲감자 원산지 에과도르에 뿌리내린 K-농업기술

한국형 수경재배 기술을 기반으로 무병 씨감자 생산·보급 시스템 구축과 소농 대상 병해충 방제, 친환경 재배 및 수확 후 관리기술을 보급했다. 에과도르 고산지 무병 씨감자 생산·보급 시범사업에 참여한 농가의 감자 생산량이 최대 40%까지 증가해 농가 소득이 20% 증대됐다. KOPIA 에과도르 센터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유엔 산하 팍토글로벌레드스과도르(PGRE)로부터 빈곤퇴치 분야 공로상을 수상했다.

▲FAO와 공동으로 아시아 태양유기탄소지도 제작

농진청과 FAO는 아시아농식품기술협력연합체(AFAC)와 협력해 아시아 태양유기탄소지도 제작을 공동 제작했다. 2019년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14개



박병홍 농촌진흥청청장이 29일 전주시 농촌진흥청 기자실에서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에 퍼지는 한국형(K)-농업기술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아시아 회원국 50여 명의 토양 전문가가 참여해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토양 내 탄소량을 정량하고, 관련 정보를 디지털화 했다. 국가별 온라인으로 정보를 손쉽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토양에 적합한 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콜롬비아, 중남미 최초 디지털 토양환경정보 시스템 구축

중남미 농식품 기술협력 연합체(KoFAC) 7개 회원국은 2017년부터 “중남미 디지털 토양환경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콜롬비아에서는 중남미 최초로 디지털 토양환경정보 시스템(IRAKA) 구축에 성공했다. 콜롬비아 쿤다보야센세 고원지대의 토양 특성 정보를 과학적으로 수집, 분석해 일반인들에게 웹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콜롬비아의 디지털 토양환경정보 시스템 연구 결과는 2020년 세계적인 학술지 카테나(CATENA, IF 4.3)에 게재되어 과학적

성공으로 인정받았다.

▲아프리카에 부는 K-농업기술, 식량 자립 토대 마련

농진청은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연합체(KAFAC)’를 구성해 아프리카에 개발 파트너십 사업을 추진하며, 아프리카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 연구기관인 아프리카개발연구소와 함께 아프리카 19개국에 다수성 벼 품종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품종 육종 기간을 줄이는 기술을 전수하고, 유전자원 교환과 재배기술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세네갈 말리, 말리에서는 5개 신품종을 보급 품종으로 등록하는 성과도 냈다.

박병홍 농촌진흥청장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국제기구·개발협력 파트너 국가와 함께 지구촌 농업 분야 공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북 숙원 3건 예타 통과 환영”

건협 전북도회, “새만금사업, 지역경제 발전 중추”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전주시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 사업 등 3건의 전라북도 숙원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자 도내 건설업계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윤방섭)는 “전북도민의 숙원이었던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사업 외 2건(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사업, 전주시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새만금은 국제공항과 신항만, 철도 등 트라이포트(Tri-Port, 철도·공항·항만) 물류체계 구축이 가시권에 들어서 동북아의 허브 중심지로서 전북 대도약을 이끌 성장동력으로 성장하는 촉매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새만금신항에서 군산 대야역까지 총 47.6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협회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기 개통된 군장선과 인입철도

인산~대야 복선전철을 통해 새만금신항~국제공항~정항선·호남선·전라선까지 연결이 가능해지며 새만금을 향한 접근성과 수송능력 등이 증가해 산업물류량 처리뿐 아니라 인적 교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어 새만금지역 내부개발 촉진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새만금 환경생태용지(2단계) 조성사업과 전주시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 사업이 함께 통과 돼 “새만금호 생태공간 조성, 수질개선 및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과 상수도 관로 복선화 사업으로 단속에 따른 전북도민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방섭 회장은 “이번 통과가 우리 전북에는 참으로 반갑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그치지 말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새만금사업이 전북도민의 희망과 지역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전자고기 발송시스템 내년 중 본격 시행

전기안전공사, 고객 스마트폰으로 일정·결과 안내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일반용 전기설비 점검안내에 관한 전자고기 발송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중 본격 시행에 나선다.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한 페이퍼리스(Paperless) 추진 시범사업 공모에서 사업 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데 따른 후속 성과다.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한 법정 점검업무 수행기관으로서 공사는 그동안 전국 200만여 호의 주택, 소규모 상가 등을 대상으로 매 1~3년마다 한번씩 정기적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점검에 앞서 공동주택 내 계사관리나 구내방송 지역케이블 방송 등을 통해 사전 안내 고지를 하고 있으나,

최근 1인 가구가 늘고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 생활문화가 확산되면서 부재 고객 증가와 방문 기피 등으로 현장 점검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전자고기 서비스는 이러한 현장점검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안전 서비스 이용자인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전기설비를 소유한 고객 개인의 스마트폰을 통해 점검 일정 안내는 물론 점검 결과까지 통지해줄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종이로 발급해왔던 고지·안내문을 모바일 전자고기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연간 1억5,000만여원의 비용절감 효과도 가져다줄 것으로 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신임 행정사무국장에게 이연규씨... 예수병원, 보직 인사 단행



이연규 신임 행정사무국장(사진)은 1989년에 입사해 자재과장, 행정과장을 역임하는 등 한결같이 예수병원의 행정 전문가로 근무하며 행정 및 재정, 인사를 총괄해 왔다.

병원은 또 이사와 사무국장에는 장성지 비서실장을 내부감사에는 송승현 현 내부감사가 유임됐으며, 총무과 과장에는 최기숙 기획재정과 과장으로 강정애가 임명됐다.

병원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신사업 추진을 위한 경영지원팀과 적정진료를 위한 진료분석팀을 신설하기도 했다.

한편, 128주년을 맞이한 예수병원은 지역민에게 선진화된 의료환경을 제공하고자 암센터 증축을 통해 내외부 시설을 개선했으며, 호남을 대표하는 지역 거점병원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권역재활병원 선정, 공공어린이 재활센터 선정으로 전북의 미래 의료 환경을 선도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북상협 “새만금 인입철도 건설 등 예타통과 환영”

전북지역 상공인들이 새만금인입철도 건설 등 전북지역 건설사업들의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전주, 익산, 군산, 전북상남상공회의소의 협의회인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윤방섭)는 지난 28일 새만금 인입철도 건설사업,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사업, 전주권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 사업 등의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도민 모두와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북상협은 성명서를 통해 오는 2027년 개통될 새만금 인입철도 건설사업은 국비 1조3천여억원이 투입되는 초

대형 사업으로 단순한 물류 운송 측면을 떠나 건설단계부터 생산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은 물론이고 운영단계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지역상공인 모두는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새만금 인입철도 건설사업의 정부 예타통과는 새만금개발의 핵심 사업으로서 공항과 항만, 철도로 이어지는 새만금 트라이포트 구축으로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과 산업물류 수송체계 마련, 기업유치, 관광산업 활성화 등 새만금개발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